

구례군-의회 조직개편안 놓고 대립각

집행부 “5급 사무관 4명 늘려야”
의회 “짚은 조직개편 업무 혼선”
양측 힘겨루기 파장 귀추 주목

구례군의 조직 개편안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지난17일 제320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구례군수가 제출한 구례군 조직 개편안이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가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군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5급 사무관의 정원을 27명에서 31명으로 4명 더 늘리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을 4명 줄이는 것이다. 4명의 5급 정원은 대외협력관과 신설되는 문화홍보실·유통축산과·지역협력과의 부서장이며, 대신 실무 공무원이 같은 수 만큼 감축된다. 구례군은 행정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개편 이유를 밝히고 있다. 반면 의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군수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과 지난해 7월1일

자로 조직 개편을 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은 점. 또 사무관 자리만 4개 늘리는 조직 개편은 간부직 확대가 목적이 된 개편안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특히 연초에 의회에 보고한 중기 인력 운용 기본계획에는 반영도 되지 않았고 짚은 조직 개편으로 업무 혼선을 초래 할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순호 구례군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로 막혀 아쉬운 마음”이라며 “직원들의 승진과 역량 발휘 기회가 제한되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새삼 산하 공무원들에게 의회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특별 지시를 내려 집행부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를 챙기고 있어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강길선 구례군 의장은 “조직 개편은 구체적으로 행정 수요가 반영 되어야하고 개편전 중기 계획, 인건비 구조, 사업 성과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를 지켜보는 군민들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협치의 결여라는 의견들이다. 집행부와 의회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A씨는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3선에 뜻을 두고 있다고 알려진 현 군수와 군수 선거에 도전을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과의 힘겨루기가 수면 아래서 작용되고 있는것 같다”며 “구례군의 발전을 위해 조직 개편을 꼭 해야 한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 해 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 구례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S군수가 서열 보다는 능률·능력주의, 성과주의를 적용 한다면 젊은 직원들을 많이 승진시켰다. 그 직원들의 정년이 아직도 상당 기간 남아 있으므로 인해 중견 6급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적게 되어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를 해소 하기 위한 조직 운용의 활로 찾기로 본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공무원들은 물론 군민들도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관심을 크게 나타내고 있다. 한편 현 김순호 군수가 취임 후 2018년 8월부터 2024년 7월1일까지 총 8번 조직개편이 있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지난 18일 순천시와 성가톨릭로병원이 개최한 지역심뇌혈관센터 개소 포럼에서 의료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지역 내 완결 진료체계 구축 구심점 돼야”

전남 첫 심뇌혈관질환센터
내달 개소 앞두고 기념 포럼

전남지역 첫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개소를 앞두고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의료계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순천시와 성가톨릭로병원이 지난 18일 호남호국기념관 다목적 강당에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남 지역 유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7월 1일 정식 개소를 앞두고, 센터 구축과 관련된 진행 사항을 알리고 체계적인 센터 운영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 광주·전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전남대병원), 순천시의사회 등 학계 및 의료전문가,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신민호 전남대 의대 교수, 이지혜 건국대 의대 교수, 조장현 성가톨릭병원 심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역할’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대응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신민호 교수는 “권역센터와 지역센터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완결 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국대 의대 이진세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해영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장, 김준태 전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뇌혈관센터장, 김영진 성가톨릭로병원 의무원장, 김대희 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순천형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명옥 성가톨릭병원장은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고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 1위에 달하는 순천으로서는 정부의 의지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그동안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및 의료인프라 조성에 힘써왔다. 그 결과 순천 성가톨릭로병원이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선정됐다. 이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로 전남 동부권 심뇌혈관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적시에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순천 성가톨릭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최종치료를 24시간 제공하고, 퇴원환자 예방관리교육 및 지역홍보 등을 담당하며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마을 주치의 제도’ 의료 취약가구 직접 방문 현장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곡성군이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곡성형 마을 주치의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군은 이번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김형진 보건의원장이 지난 17일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방문 가정은 고령의 거동 불편자로, 육장으로 인해 관리가 필요하나 평소 병원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의료원장을 포함한 의사와 간호사 등 방문보건인력 4명이 동행하여 혈압, 혈당 체크 등의 기초건강검사를 하고, 기본 진찰 및 건강상담 실시, 육창드레싱 및 관리, 생활 속 보건교육 등



곡성군 마을 주치의 사업으로 의료진이 의료 취약가구를 방문해 진찰하고 있는 모습.

을 제공했다. ‘마을 주치의 제도’는 의사와 간호사 등 방문보건인력이 동행하여 ▲기초건강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맞춤형 진찰 및 건강상담 ▲간호지시서를 통한 처치(육창·쿨쿨·소변줄 관리

등) ▲생활 속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곡성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방문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거동불편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광양시, 병해충 방제효과 뛰어난 곰팡이 발굴 ‘특허등록’

‘백광이’ 친환경 방제제 인정
연내 민간 기술이전 추진

광양시가 최근 병해충 방제효과가 뛰어난 곰팡이를 전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최초로 발굴해 특허등록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시행한 ‘백운산 자생 곤충병원성 미생물(곰팡이) 연구개발 사업’ 결과, 감염된 곤충에서 ‘백광이’라는 곰팡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백광이’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식물병원균에 대한 역효과가 강하고 살충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특허등록(등록번호 제10-2822-22호)했다. 이로써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식물병 방제제로 특허등록한 ‘지와이균’에 이어 두 번째로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특허등록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전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중에서는 최초의 결실이다. 아울러 농업 미생물 분야를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백광이’는 농작물에 병을 일으키는 주요 식물병원균인 균핵병, 시들음병, 역병, 잣빛곰팡이병 및 탄저병에 대해 뛰어난 항균 능력을 보였고, 농작물에 서식하며 피해를 주는 노린재류, 나방류, 잎벌레류, 멸구류 등의 해충에 대해서도 강한 살충효과를 나타내 우수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제로 인정 받았다. 시는 연내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등록을 통해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다음달 5일부터 해수욕장 9곳 개장

전남지역 해수욕장 중 여수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이한다. 여수시는 다음달 5일 해수욕장을 일제 개장하고 8월17일까지 44일간 운영한다. 관내 해수욕장은 만성리, 모사금, 방죽포, 무술목, 장등, 남도, 거문도, 안도, 웅천 등 9곳이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물놀이 안전을 위해 모든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한다. 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해양경찰서, 여수시

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 안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백사장 토양 조사와 수질 조사를 시행 중이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해상 안전관리 경계선과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했으며, 샤워장, 화장실, 모래사장 등 편의시설도 정비했다. 또,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40명을 채용해 구조에 필요한 실무교육 후 해수욕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건강기능식품 300ml x 3(총 900ml)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를 받은 광고를 입니다.